

#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풍경화

January 31, 2019 | 전지현 기자

##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풍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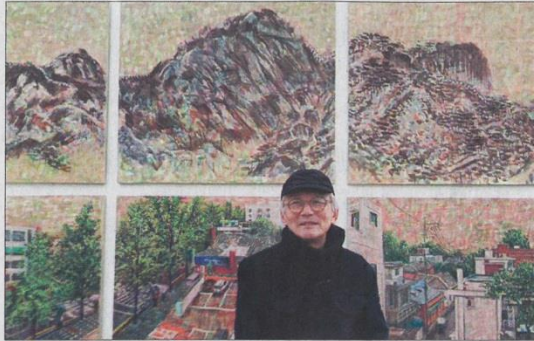
### 남북정상회담장 그림 ‘북한산’ 작가 민정기

도시에서 지친 민정기 작가(70)는 1987년 경기도 양평군으로 작업실을 옮겼다. 자연 안에 서니 나무가 자세히 보여서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저 보이는 대로만 그리지 않았다. 발품을 팔아 전국 곳곳을 누비고, 역사서와 고지도까지 연구했다. 그는 이런 답사를 ‘인연’으로 생각하고 사료를 조사한다.

지난해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장에 걸린 정복발 산수화 ‘북한산’은 두 달 넘게 답사한 후 지도 제작자에 가까운 정도로 지형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당시 청와대는 역사상 처음으로 남한 땅을 밟는 북측 최고지도자를 서울 명산으로 초대한다는 의미로 이 작품을 선택했다. 서울에 있는 산이지만 이름은 ‘북한산’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이 작품은 2007년 작가의 개인전에 전시된 후 2008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돼 있었다.

서울 국제갤러리 개인전에서 만난 그는 “남북정상회담 후 축하 인사와 격려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인생에서 다시 없을 좋은 기회를 만났던 그는 작품에 더 정진해 신작 14점 등 28점을 펼쳐냈다. 서울시내에 산재한 건축물이나 터를 역사적 사실이 기반해 재구성한 풍경화를 처음 선보였다. 서울 종로구 청계천, 사직단, 새감정, 백사실계곡 등이 유려하고 성실한 붓놀림 끝에 기



‘인왕산’ 연작 앞에 선 민정기 작가.

**치열한 답사·역사 고증 통해  
실제 풍경에 사라진 건물 결합  
서양화 기법에 동양화 형식 차용  
청계천·사직단 등 그린 신작 전시**

운생동한다.

자연에서 도시 풍경으로 화폭을 이동한 작가는 “시골에 있으면 나태해져 다시 서울로 왔다”고 설명했다.

전시장에서 그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그림을 가리키면서 작업 배경을 설명하자 역사·지리 수업 시간이 됐다. 산세와 물세 등 지형과 인문학적 지식을 풀어

놓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시점과 시간, 역사가 공존한다는 점에서 다른 풍경화와는 차별화된다. 현재 모습에 사라진 과거 건물을 그려넣거나 산을 옮겨 그리는 재해석을 동원했다.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원근법과 투시법을 무시한 채 여러 시점 풍경을 재조합하는 것도 특징이다.

신작 ‘청동계 1~2’는 인왕산 자락 아래 화재로 소실된 일제강점기 프랑스식 건물과 현대 다세대 주택들을 섞었다. 대한제국 관료였던 윤덕영이 지었지만 친일파 논란에 입주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 후 건물은 여러 쓰임새로 사용되다가 1970년대에 철거됐다. 실제 풍경에 상상하듯 과거와 현재를 화폭으로 연결한 것이다. 원래 이 동네에서 보이지 않던

청와대도 끌어와서 그려넣었다. 제일교회와 박노수 미술관은 실재하는 건물이다. 그는 “윤덕영 별장과 다세대주택을 함께 그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나. 배화여대에서 바라본 풍경인데 북악산·북한산 봉우리와 인왕산 줄기 등 3개 산이 모두 보이는 게 재미있어서 두 번 그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신작 ‘박태원의 천변풍경 1~3’은 박태원 소설 ‘천변풍경’을 바탕으로 그렸다. 한 남자가 머리를 깎는 이발소 창문 너머 청계천에서 빨래하는 여인들, 북개공사, 최근 모습을 상상력을 발휘해 그려냈다.

서양 유화 물감과 조형어법을 사용하면서도 고지도와 병풍, 산수화 등 동양화 형식을 차용했다. 2016년작 ‘유몽유도원’은 조선 초기 안견의 몽유도원도 이미지 위에 현재의 부암동 풍경을 병치시켰다. 부암동의 태극적 지세와 변모된 현실 풍경을 대비해 보여준다.

2016년 그가 사는 양평군을 그린 ‘수입리(양평)’는 동양화 부근법과 투시도법을 재해석해 산과 강을 민화적으로 풀어냈다. 신작 ‘사직단이 보이는 풍경 1~3’과 ‘인왕산 1~6’은 병풍 형식을 빌려 여러 개 화폭으로 구성했다. 그는 “옛 그림이 좋은 단서가 된다”고 했다.

이번 전시는 2007년 경기도 가평군 조씨 집성촌을 그린 ‘목안리 장수대’부터 2013년 김가진 장군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복원한 중경 토교 우리촌까지 드넓은 보폭으로 완성됐다. 전시는 3월 3일까지. 문의 (02) 735-8449 전지현 기자